

작목결합 유형별 최적화 모델개발

□ 시험성적('96 경기)

○ 경영유형별 경영확보 가능규모

경영유형		구분	현재규모 (ha)	경영확대 가능규모(ha)	규모확대시의 농가소득(천원)	10a당 한계 이익(천원)
벼농사 위주	자가토지(100%)		2.6	3.3	16,444	530
	자기(70%)+임차(30%)		3.4	5.0	22,459	485
	자기(50%)+임차(50%)		4.0	6.1	25,429	448
땅두릅 + 벼			0.5+1.4	1.1+1.0	27,575	1,639
느타리버섯+벼			80평+1.6	214평+1.0	28,013	10,817
오이+오이+김장배추			0.2	0.5	32,178	6,278
수박+수박+김장배추			0.3	0.6	33,786	5,437
부 추			0.3	0.6	27,713	4,734
고추+오이+김장배추			0.2	0.4	31,359	7,514

주 1) 「벼농사 위주」는 평택 길음(평야지), 포천 증리(중산간지)의 평균치임. 땅두릅+벼, 「수박+수박+김장배추」, 「부추」는 평택 길음(평야지)의 경영유형, 「느타리버섯+벼」, 「오이+오이+김장배추」, 「고추+오이+김장배추」는 포천 증리(중산간지)의 경영유형임.

2) 이익계수는 두지역의 10a당 소득을 적용

기술계수는 작목별, 월별 노동투하량과 경지이용의 기술적 제약 조건을 적용

자원제약량은 경영유형별(노동환산인수×8시간/일×25일) 적용

□ 적 요

○ 경영규모 확대시의 10a당 한계이익은 「땅두릅+벼」는 1,639천원, 「느타리버섯+벼」는 10,817천원, 「오이+오이+김장배추」는 6,278천원, 「수박+수박+김장배추」는 5,437천원, 「부추」는 4,734천원, 「고추+오이+김장배추」는 7,514천원으로 시산됨